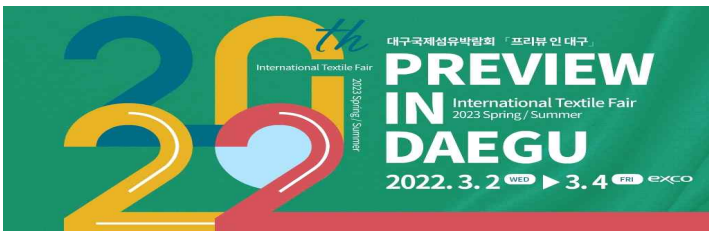


전시회 소식

■ PID 2022 섬유기계 공동관 참가

한국섬유기계협회는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2022년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2022.03.02 ~ 2022.03.04 / PREVIEW IN DAEGU 2022) 에 섬유기계 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주)삼화기계 (1부스), 형제정밀기계(주) (2부스), 대원기계공업(주) (2부스), (주)동원롤 (2부스), (주)세라트랙 (1부스), (주)이화에스알씨 (6부스), 한국테크 (4부스), 일신기계 (1부스) 등이 참가하며, 협회 홍보부스 (2부스)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6부스)도 함께 섬유기계 공동관을 구성하여 총 27부스 규모다. 이 외에도 한국세폭이 생분해성 섬유인 PLA 제품 (가방 벨트, 마스크 이어밴드, 운동화 끈 등) 을 개발하여 소재 부문으로 참가한다.

올해 개최 20회를 맞이하는 PID 2022는 지속가능한 섬유의 미래가치 및 뉴노멀 시대를 슬로건으로 하여, 원사, 직물, 기능성·친환경 소재, 패션의류, 섬유기계 등 섬유 산업 전반의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신소재·친환경 특별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통한 화상 상담회, 20회 개최 기념 특별 이벤트 등이 동시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섬유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DTG 2022 개최 연기

2022년 3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섬유기계전시회 (DTG 2022) 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여파로 2023년 2월 15일에서 18일로 개최 일정이 조정되었다. 참가 예정 업체는 (주)구일기계공업, 유진기계, (주)에이스기계, (주)보우, 태신INT, 부국정밀, 원택 등이다.

■ 「ITMA Milano 2023」 참가사 모집

섬유기계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인 「ITMA Milano 2023」이 2023년 6월 8일에서 6월 14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의 FIERA MILANO RHO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19년 전시회에는 45개국에서 1,717개사가 참가를 하였으며, 100,000명을 상회하는 방문객으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참가 신청 마감은 **2022년 3월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여타 해외 섬유기계 전시회 참가가 불가능했던 전 세계 섬유기계 업체들의 참가 러쉬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신청으로 지구촌 섬유기계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신청업체는 (주)삼화기계, (주)니텍스제침, (주)디지아이, 일성기계공업(주), 부광테크, (주)구일기계공업, (주)이화에스알씨, (주)월드로, 일신기계, 매일기계(주), (주)세라트랙, (주)디젠 등 12개 업체이다.



■ 2022년 참가 예정 해외전시회 안내

우리 협회는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아래와 같이 해외 전시회 공동관 참가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2022년 참가 예정 해외 전시회 현황 >

전시회명	개최일정	국가/도시
ITM 2022	06.14 ~06.18	터키 이스탄불
INDO INTERTEX 2022	08.10 ~08.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TMA ASIA 2022	11.20 ~11.24	중국 상해

❖ 무역 및 시장정보

■ 섬유기계 수출·입 실적 (2021년 1월 ~12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2,314,541	1,088,736
국 가 별	중 국	125,731	589,700
	미 국	1,311,336	14,134
	일 본	15,580	37,805
	베트남	110,820	224,362
	유럽(계)	136,295	85,652

■ 인도의 섬유 및 의류시장 동향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유 및 의류 생산국이며, 양모, 실크, 황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은 GDP의 2.3%를 기여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의 13%, 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산업의 직접 고용인원은 4,500만명이고 연관 산업에 고용된 인원은 6,000만명 수준이다. 2019-2020년도 기준 섬유 및 의류시장은 1,0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25-2026년도까지 수요는 연평균 성장률 12%수준으로 상승해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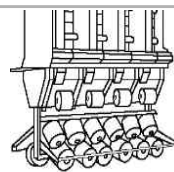
한편, 2020년 11월 기준 혼방 직물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면 편물 생산은 소매점 및 쇼핑몰 개장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면 직물에 대한 수요는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장 및 학교 의류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생산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섬유 분야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3%를 기록, 47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열 보호, 혈액 흡수제, 안전벨트, 접착 테이프 등에 사용되는 기술 섬유 분야는 2023-2024년 기준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기술섬유협회 (ITTA)에 따르면 「인도의 기술 섬유 소비는 전체 섬유 소비의 5-10% 수준인 반면에 선진국은 30-70%에 육박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술 섬유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도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은 2025-2026년에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평가기관 ICRA에 따르면 2021-2022년도의 인도 의류 수출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 수요회복에 따라 성장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인도는 향후 5년간 전 세계 의류 시장이 1-2% 수준으로 완만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공급처 다각화를 모색하는 수요에 힘입어 성장할 전망이며, 니트류와 합성 섬유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섬유 및 의류시장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직물 공장은 총 3,544개이고 그중 영세 기업은 1,360개 가량이며,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인도 정부의 섬유 및 의류 정책은 섬유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고용창출,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섬유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가치사슬 균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적용되는 분야는 제사, 직조, 편물, 가공, 의류, 기술 섬유 제조 분야, 섬유기계 제조업 등 가치사슬 내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실제로 2020년에 인도 정부는 합성 및 기술 섬유 부문의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5개의 통합 대형 섬유시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출처 :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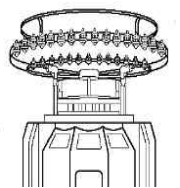


KOTMA 한국섬유기계협회 회원가입 안내

담 당 : 조성환 상무이사

문 의 : 053-817-5954

대 상 : 섬유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사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 경영전략본부장에 박성근 前군위군 부군수 임명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경영전략본부장에 박성근 前군위군 부군수를 임명했다. 박성근 신임 본부장은 경북 영주 출생으로 영주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장, 일자리청년정책관, 일자리경제노동과장 등을 역임했다.

■ 산업용 섬유제품 가공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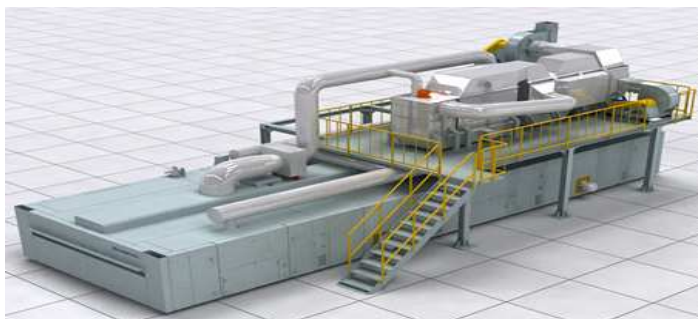
상하온도분리 가능 광폭 텐터시스템 개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주)이화글로벌텍(대표 정병식)을 중심으로 「100°C이상 상하온도분리가 가능한 폭 5m급 산업용 섬유 텐터시스템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은 의류용에서 산업용 섬유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폭 고중량 섬유가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폭 고중량 산업용 섬유는 자동차 분야의 카매트, 인테리어 분야의 카페트, 스포츠 분야의 인조 잔디 등으로 산업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이와 같은 산업용 섬유가공은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는 폭 5m 이상 광폭가공기술, 건조 챔버 내 상하온도분리가 가능한 구조 기술, 텐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악취 제거기술이 가능한 다기능 복합 텐터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폐열회수 장치가 결합된 촉매방식 배기정화장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포장이 가능한 폭 5m급 광폭 텐터시스템을 (주)이화글로벌텍과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개발기관인 FITI시험연구원, 코오롱글로벌(주)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용 텐터시스템 국산화 및 공정기술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광폭 고중량 산업용 텐터기 개발로 산업용 섬유제품 생산기술,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친환경 기술이 개선되어 직간접적으로 향후 연간 1,000억 이상의 수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합배기정화가 구비된 상하온도분리가 가능한 폭 5m급 텐터시스템 (주)이화글로벌텍

<출처 :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이인준 전임연구원>

☞ 산업계 소식

■ 제2회 도른비른 (Dornbirn) GFC-ASIA 개최

세계 최대 국제 섬유 컨퍼런스인 Dornbirn GFC-ASIA가 대구 엑스코에서 3월 2일부터 3일까지 다이텍연구원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강연 주제는 ▲섬유기술혁신 ▲부직포 및 산업용 섬유 ▲기능성 섬유 ▲복합 소재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 등 총 5가지이며 모든 강연은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렌징사(社)의 최고개발책임자인 로버트 반데 케르코프와 성균관대학교 배한용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3개의 강연이 마련된다. 섬유업계 주요 이슈인 환경규제, 미세 플라스틱, 친환경 섬유, 재활용 가능 제품 등 「지속 가능한 섬유산업」의 전환에 따른 각 국가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 분야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무 다이텍연구원장은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섬유산업 기술을 널리 알리고 아시아 기업 간 다양한 협업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오프라인 강연 때는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 성공적인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컨퍼런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며, 컨퍼런스 사전등록 및 기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dornbirngfc-asi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DYETEC연구원>